

단편영화처럼

scenario by

남희수 그리고 이영민

1. 몽타주.

- 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희수.
- 웅한 벤치에 떨어진 낙엽을 찍는 희수.
- 그 외 사진 찍는 모습 여러 컷.

2. 거리, 낮.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걸다가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는 희수.
약간의 쌀쌀하지만 청명한 하늘.
하늘을 보며 살며시 미소 짓는 희수.
카메라를 들어 하늘을 찍는다.
그때, 문자가 온다.
지잉---

확인해보면 남친 영민의 문자.

‘시나리오 읽었어. 거기서 봐.’

무표정하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다시 올려다보는 희수.
너무나도 맑은 하늘.

3. 골목 어딘가, 낮.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희수의 시나리오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영민.
시나리오 첫 장에는 “screenplay 남희수, 이영민”이라고 적혀있다.
그때, 누군가 영민을 부른다.

하과장	김대리! 뭐해! 빨리 와!
영민	네!

시나리오를 반으로 접어 뒷주머니에 구겨 넣고 뛰어가는 영민.

4. 학원, 앞, 낮.

insert.
희수가 학원 안으로 들어간다.

5. 학원, 강의실, 안, 낮.

헌팅한 사진들을 노트북으로 정리하는 희수.

모니터로 사진들을 확인하고 있다.

6. 학원, 앞, 낮.

“screenplay 남희수, 이영민”이라고 적혀있는 시나리오 앞장이 넘겨진다.
시나리오 출력물에 언뜻 봐도 무언가 삐곡하게 적힌 흔적이 살짝 보인다.
화면을 가득 채운 시나리오에서 카메라 빠지면, 영민이 고개를 든다.
고개를 든 영민이 어딘가를 쳐다본다.
희수가 들어간 건물이 보인다.
그렇게 건물을 훑어보다가 전화를 거는 영민.

7. 학원, 강의실, 안, 낮.

지잉--
핸드폰이 울린다.
전화를 받는 희수.

희수	어. 언제 와?
영민(S.O)	어... 그게 일이 늦게 끝나서 오늘 못 갈 거 같은데?
희수 바쁘구나.....
영민(S.O)	늦게 끝나서..... 미안.
희수	근데 촬영 전까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니 얘기 듣고 싶어. 시나리오.
	늦게라도 괜찮으면 기다릴게.

8. 학원, 앞, 낮.

학원 건물을 바라보는 영민.
약간 답답한 듯.

영민	기대린다고?
희수(S.O)	어... 오늘 못 보면 촬영날까지 시간이 없어.
영민
희수(S.O)	이영민! 듣고 있어?
영민	어... 알았어. 이따 봐.

한숨을 쉬며,
다시 시나리오를 읽는 영민.
시나리오의 한 부분을 읽고 있다.

“3월은 도대체 뭐야
큰 눈이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3월에 왜 벌써 눈이 와?
낮 최고기온이 22도를 찍어도 이렇게 얘기해.
3월에 무슨 22도야. 이제 곧 겨울인데...”

희수(S.O) 3월은 도대체 뭐야?
큰 눈이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3월에 왜 벌써 눈이 와?
낮 최고기온이 22도를 찍어도 이렇게 얘기해.
3월에 무슨 22도야? 이제 곧 겨울인데...

영민(S.O) 3월? 갑자기 웬 3월?
희수(S.O) 꼭 나같애. 3월.
가을, 겨울 그 어딘가.
어중간한 그런.

영민(S.O) ... 너만 3월일까? 너만 머물러있는 3월이냐고.
그래도 넌 ... 기다리면 언젠가 봄도 오고 여름도 오겠지.
그렇게 말하면 난 언제나 3월이야.
어중간한 3월.

희수(S.O) 넌 ... 포기했잖아.

9. 학원, 강의실, 안, 낮.

앞 sound 이어서,
카페에 마주 앉아있는 영민과 희수.

희수 넌... 포기했잖아.
영민 (피식) 그래. 난 포기했어. 나 포기한 거 상기시키려고 불렀냐?
희수 아니. 시나리오. 그거 같이 썼잖아.
영민 그래서.
희수 곧 있으면 촬영 들어가. 나 잘 찍을 거야.
 그래서 듣고 싶었어.
 어떻게 찍어야 할지, 그 대사가 상황에 맞는지, 재미는 있는지.....

영민 뭘 듣고 싶다는 거야.
 우리 이거 쓸 때 기억 안 나?
 시나리오 다 쓰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자신있다! 그랬어.
 난 자신없다고 그랬고. 그런 나한테 뭘 듣고 싶다는 거야.
 시나리오에서처럼 난 언제나 3월인데.

희수 그냥.....
 뭐라도 듣고 싶었어.

가만히 고개를 돌리는 두 사람.

10. 거리, 낮.

희수, 영민.

길을 걷는 두 사람.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영민.

희수도 멈칫하며 멈춰선다.

영민이 뒷주머니에서 구겨진 시나리오를 희수에게 건넨다.

희수는 의아한 표정.

영민

너... 영화 잘 찍어.

몰랐나?

잘 할 수 있을거야.

하며 웃으며 먼저 길을 떠나는 영민.

그런 영민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는 희수.

영민이 준 시나리오를 한 장 넘긴다.

빼곡하게 적힌 시나리오 감상평.

피식- 웃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희수.

말다.

희수도 걸음을 옮긴다.